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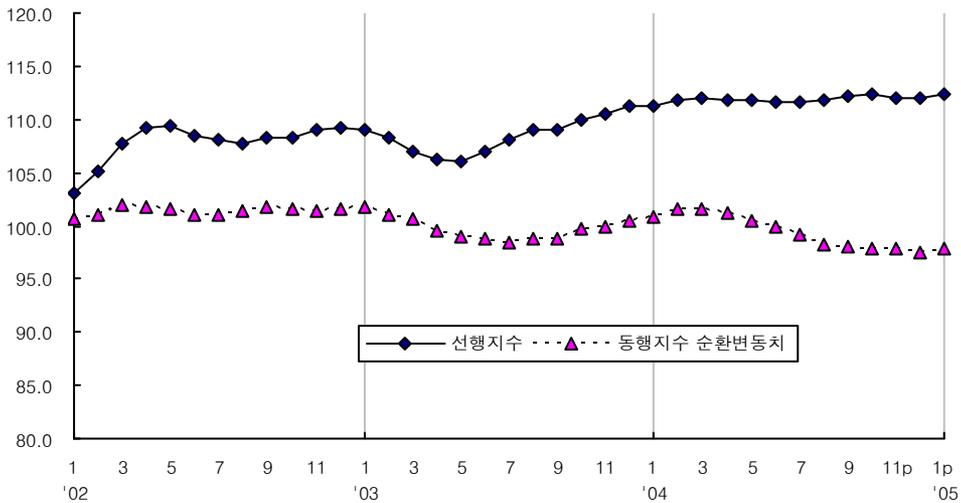
노동시장 동향

경제일반

- ◆ 생산과 투자 증가, 소비 감소
- 생산(제조업, 서비스업)과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도소매 판매는 감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증가하고 경기순환에 앞서서 나타나는 선행지수 또한 전월보다 소폭(0.4%)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산업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설 수요의 2월 이전에 따른 도소매 판매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 등은 증가하여 소비부진이 부분적으로 개선(표 1, 그림 2 참조)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0%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45.7%), 반도체(21.0%), 기타 운송장비(39.2%)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많이 증가하고, 담배(-57.0%), 인쇄출판(-11.4%), 석유정제(-2.8%)에서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4.6%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12월(2004)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어 1월(2005)에는 0.7% 증가하였으며,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감소에서 증가세로,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소세가 지속

[그림 1] 경기지수 동향

(단위 : 200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2	2003				2004				2005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분기	1월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p	1/4분기
생산	광공업생산	11.2	6.1	3.1	3.0	7.7	11.3	4.7	12.7	11.4	6.7	14.2
	제조업 생산	11.2	5.7	2.9	3.0	8.0	11.9	5.1	13.2	11.6	7.0	14.6
	출 하	10.8	4.4	2.8	2.5	6.7	10.0	4.0	10.8	10.1	5.8	12.4
	수 출	12.2	7.3	9.9	11.2	17.6	21.9	16.5	23.4	20.4	15.0	21.7
	내 수	10.0	2.8	-0.7	-2.1	0.9	3.7	-2.4	3.8	4.1	0.3	6.5
	서비스업 생산	8.0	1.9	0.9	0.5	0.6	2.1	0.0	0.9	-0.5	-0.2	0.7
소비	도소매 판매	7.1	1.7	-1.5	-2.3	-2.0	-0.2	-2.8	-0.6	-1.1	-1.4	-3.0
투자	설비투자	13.8	2.6	0.2	-6.4	-5.3	-2.0	0.0	3.2	3.8	0.1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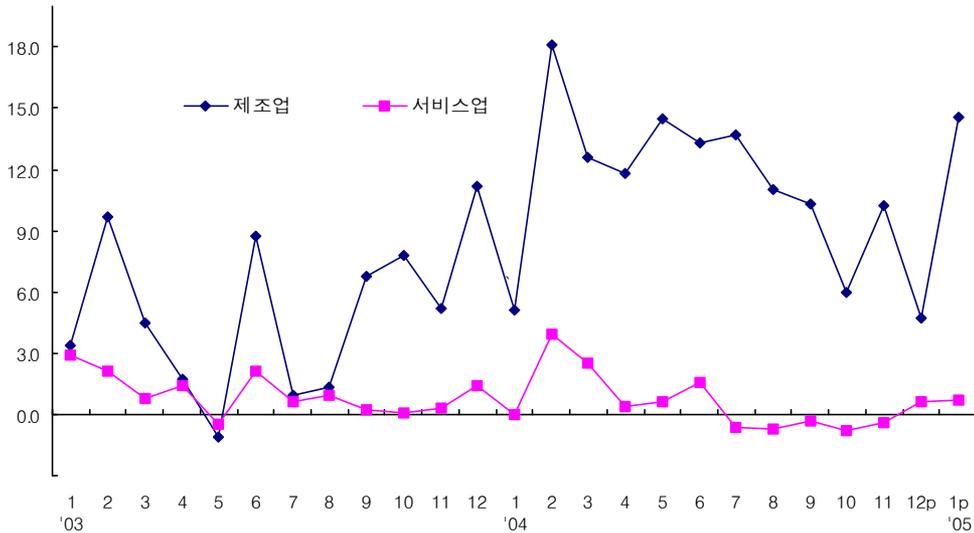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 『2005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5. 2.
 『2005년 1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5. 3.

고용 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실업률 증가

- 2005년 2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5천명(0.5%)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전년동월대비 0.5%포인트 감소
- 2005년 2월 취업자는 22,08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천명(0.4%) 증가하였는데, 여성취업자 증가와 남성취업자 증가의 차이가 많이 완화되었음(남성: 38천명(0.3%), 여성: 42천명(0.5%) 증가)(그림 3 참조).
- 2005년 2월 실업자는 925천명으로 전년동월(900천명)대비 25천명(2.8%)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4.0%로 0.1%포인트 상승
 - 남성실업자가 많이 증가하였으며(남성: 36천명(6.7%), 여성: -11천명(-2.9%)), 실업

- 를 또한 남성이 많이 증가(남성: 4.2%(0.2%포인트), 여성: 3.8%(-0.1%포인트))
- 실업률 4.0%는 2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계절조정실업률(3.5%)은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29천명(2.2%)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0천명 증가
 - ※ 구직단념자 추이: 105천명(2004. 2) → 92천명(2004. 9) → 105천명(2004. 12) → 136천명(2005. 1) → 135천명(2005. 2)
- 2005년 2월 고용사정은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화되었음에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일부 경제지표들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2005년 2월중 실업률은 소폭 증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여 전반적인 고용환경이 악화
 - 이는 지난해 좋지 않았던 내수 등 실물경제의 부진이 원인이었으며, 그 영향이 2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됨.
 - 비록 취업자가 전년동월에 비하여 소폭(0.4%) 증가하고 취업자 증가가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구직단념자가 증가하고, 36시간 미만 단시간 불안전취업자의 증가, 저부가가치 개인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등을 감안할 때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지 않았음.
 - 청년층의 실업자와 실업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감소하여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다소 개선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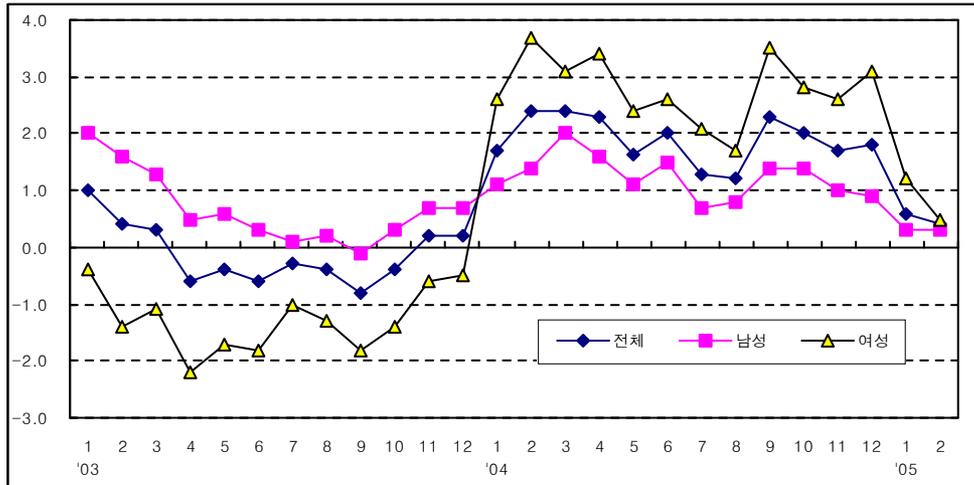
(단위: 천명, %)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2월			4/4분기	12월	1/4분기	
			2월	3/4분기	3/4분기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3,119 (0.6)	22,982 (2.4)	22,906 (2.6)	23,531 (2.1)	23,434 (1.7)	23,534 (1.8)	23,349 (1.9)	22,982 (0.8)	23,011 (0.5)
참가율	61.7	61.2	61.0	62.5	62.0	62.2	61.7	60.6	60.5
취업자	22,325 (0.0)	22,104 (2.2)	22,006 (2.4)	22,744 (2.0)	22,647 (1.6)	22,733 (1.8)	22,495 (1.8)	22,078 (0.6)	22,086 (0.4)
실업자	794	878	900	787	787	802	855	904	925
실업률	3.4	3.8	3.9	3.3	3.4	3.4	3.7	3.9	4.0
비경제활동인구	14,357 (1.8)	14,595 (-1.1)	14,671 (-1.4)	14,141 (-0.7)	14,337 (0.0)	14,313 (-0.3)	14,521 (-0.4)	14,940 (1.3)	15,000 (2.2)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5년 2월 고용동향』, 2005. 3.

〔그림 3〕 취업자 증감률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2005년 2월 고용동향』, 2005. 3.

◆ 제조업 취업자 감소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 2004년 2월 산업별 취업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348천명, 5.5%), 전기·운수·통신·금융업(21천명, 1.0%)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96천명, -5.6%), 농림어업(-94천명, -6.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9천명, -1.3%) 등에서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 산업별 취업자 증가순위를 보면,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21천명, 11.0%), 사업서비스업(113천명, 8.1%), 보건 및 복지사업(56천명, 9.8%), 교육서비스업(47천명, 3.3%) 순이며 취업자 감소순위는 건설업, 농림어업, 도매 및 소매업 순임.
 -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에서 남성 취업자는 25천명(0.9%) 증가 하였으나, 여성은 -43천명(-2.0%) 감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취업자가 많이 증가(남성: 91천명(2.6%), 여성: 257천명(8.9%))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서비스업종에서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는 9월(2004) 이후 감소하고 있음(그림 4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월	2월
전 산업	22,325 (0.0)	22,104 (2.2)	22,006 (2.4)	22,744 (2.0)	22,647 (1.6)	22,733 (1.8)	22,495 (1.8)	22,078 (0.6)	22,086 (0.4)
농림어업	1,882 (-8.0)	1,609 (-5.3)	1,555 (-5.5)	1,967 (-7.5)	1,933 (-7.5)	1,789 (-4.9)	1,549 (-1.7)	1,405 (-5.6)	1,462 (-6.0)
제조업	4,246 (-0.1)	4,278 (2.6)	4,272 (2.9)	4,308 (1.7)	4,278 (2.7)	4,296 (1.2)	4,261 (0.1)	4,252 (-0.1)	4,255 (-0.4)
건설업	1,854 (2.3)	1,762 (1.6)	1,728 (1.7)	1,864 (0.5)	1,790 (-1.7)	1,864 (0.6)	1,843 (-0.5)	1,686 (-3.1)	1,632 (-5.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851 (-2.1)	5,912 (-0.1)	5,919 (0.0)	5,866 (0.5)	5,819 (0.2)	5,853 (0.0)	5,886 (-0.3)	5,848 (-1.5)	5,839 (-1.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6,322 (4.5)	6,362 (7.3)	6,347 (7.7)	6,542 (8.0)	6,617 (5.8)	6,711 (6.1)	6,723 (6.3)	6,667 (5.4)	6,695 (5.5)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153 (-1.0)	2,163 (-0.2)	2,165 (-0.3)	2,182 (0.2)	2,197 (2.6)	2,205 (2.4)	2,218 (2.4)	2,202 (1.6)	2,18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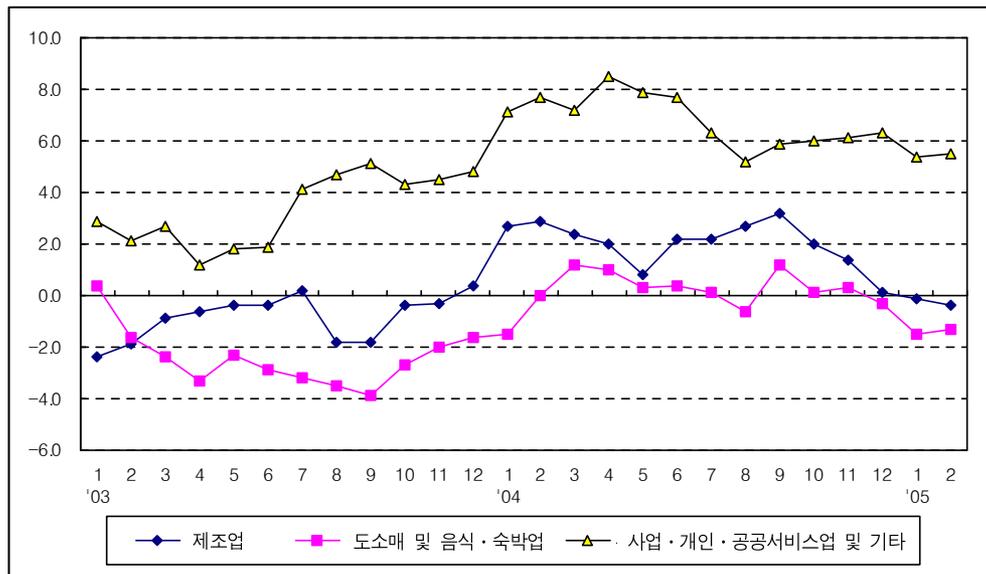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 2) 자세한 업종별 취업자 현황은 부표 참조.

자료: 통계청, 『2005년 2월 고용동향』, 2005. 3.

[그림 4] 업종별 취업자 증감률

(단위: %)



자료: 통계청, 『2005년 2월 고용동향』, 2005. 3.

◆ 상용근로자 증가, 36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

○ 2005년 2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14,7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1천명(1.2%)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7,3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명(-1.4%) 감소

- 임금근로자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는 2004년 5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5 참조).
-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한 것은 상용근로자(322천명, 4.3%)이며, 비임금근로자 감소를 주도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134천명, -9.1%)임.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위주로 취업자 증가가 진전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수준은 아님.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 56.8%(1996)→47.9%(2000)→51.2%(2004)→52.8%(2005. 2)

○ 2005년 2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31천명(16.2%)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19천명(-2.2%) 감소

※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로 18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많이 증가 : 129천명(2004. 2)→174천명(2005. 2)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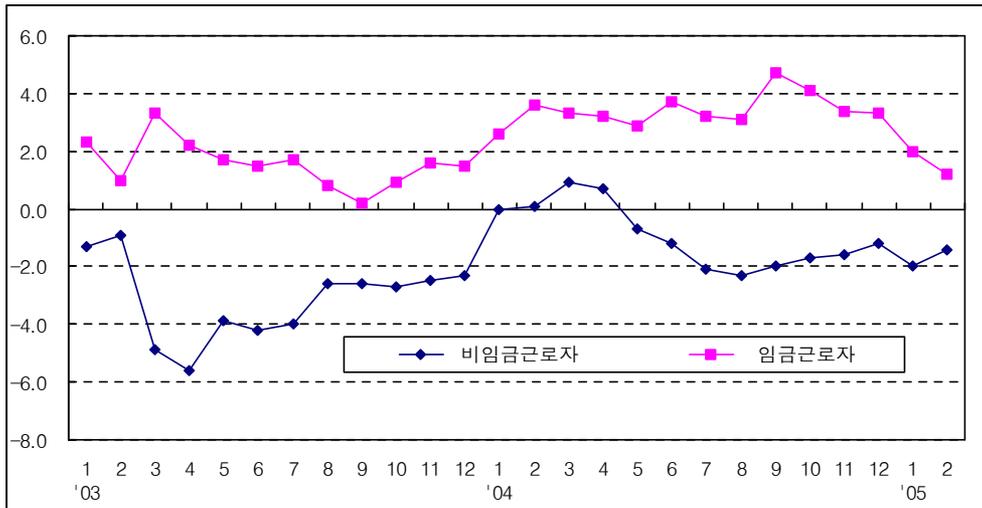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22,325 (0.0)	22,104 (2.2)	22,006 (2.4)	22,744 (2.0)	22,647 (1.6)	22,733 (1.8)	22,495 (1.8)	22,078 (0.6)	22,086 (0.4)
비임금근로자	7,748 (-2.5)	7,490 (0.3)	7,456 (0.1)	7,762 (-0.4)	7,769 (-2.1)	7,631 (-1.5)	7,385 (-1.2)	7,283 (-2.0)	7,355 (-1.4)
임금근로자	14,577 (1.4)	14,614 (3.2)	14,549 (3.6)	14,983 (3.3)	14,878 (3.6)	15,102 (3.6)	15,109 (3.3)	14,796 (2.0)	14,731 (1.2)
상용근로자	7,383 (6.1)	7,460 (4.0)	7,453 (4.1)	7,586 (4.6)	7,671 (5.5)	7,781 (5.4)	7,776 (4.9)	7,767 (4.6)	7,774 (4.3)
임시·일용근로자	7,194 (-3.2)	7,154 (2.3)	7,097 (3.0)	7,396 (1.9)	7,207 (1.7)	7,320 (1.8)	7,333 (1.7)	7,028 (-0.8)	6,956 (-2.0)
36시간 미만	2,370 (-1.0)	2,587 (0.8)	2,667 (12.3)	2,509 (27.9)	2,687 (-10.0)	2,501 (5.5)	2,757 (4.7)	3,007 (12.0)	3,098 (16.2)
36시간 이상	19,730 (-1.0)	19,125 (0.8)	18,943 (0.5)	20,004 (-0.8)	19,563 (3.6)	20,000 (1.4)	19,494 (1.3)	18,420 (-1.5)	18,524 (-2.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5년 2월 고용동향』, 2005. 3.

〔그림 5〕 임금근로자의 증감률

(단위 : %)



주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5년 2월 고용동향』, 2005. 3.

◆ 40대 이상과 고졸 이하에서 실업자 증가

○ 2005년 2월의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425천명, 실업률은 8.6%로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35천명, 0.5%포인트 감소

- 실업자 및 실업률은 청년층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30대에서 실업자가 많이 증가(32천명(17.2%))
- 교육수준별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 4천명, 고졸 38천명 증가하였으며, 실업률도 0.2%포인트, 0.4%포인트 각각 상승하였으며, 대졸 이상의 실업자는 17천명 감소(실업률은 0.4%포인트 감소)
- 2월(2005) 청년층 실업률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체 실업률 추이와는 달리 청년층 실업률의 변동폭은 큰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표 5〉 연령별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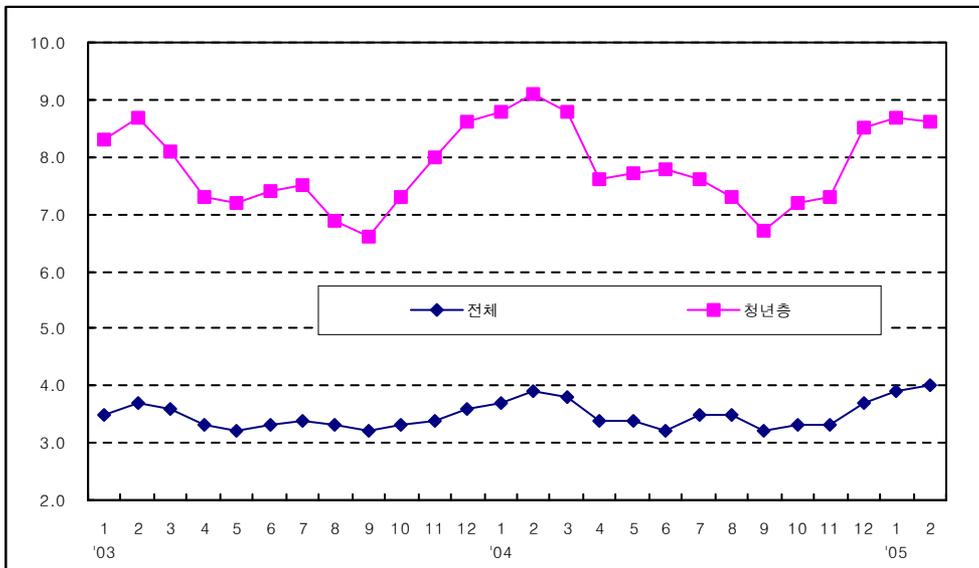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2003		2004					2005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794(3.4)	878(3.8)	900(3.9)	787(3.3)	787(3.4)	802(3.4)	855(3.7)	904(3.9)	925(4.0)
15~29세	394(8.0)	448(8.9)	460(9.1)	383(7.7)	355(7.2)	378(7.7)	420(8.5)	431(8.7)	425(8.6)
30~39세	188(3.0)	181(2.9)	186(2.9)	176(2.7)	192(3.0)	193(3.0)	201(3.2)	212(3.4)	218(3.5)
40~49세	129(2.1)	151(2.4)	152(2.4)	129(2.0)	141(2.2)	134(2.1)	134(2.1)	160(2.5)	170(2.7)
50~59세	61(1.8)	73(2.2)	76(2.3)	74(2.2)	73(2.1)	75(2.1)	81(2.3)	78(2.3)	89(2.6)
60세 이상	23(1.0)	25(1.2)	26(1.3)	25(1.1)	25(1.1)	21(0.9)	19(0.9)	24(1.2)	24(1.1)
중졸 이하	132(2.2)	144(2.5)	145(2.6)	132(2.2)	141(2.4)	136(2.3)	134(2.3)	162(3.0)	149(2.8)
고졸	438(4.3)	466(4.6)	459(4.5)	398(3.9)	417(4.1)	457(4.5)	512(5.0)	520(5.1)	497(4.9)
대졸이상	224(3.2)	268(3.8)	296(4.1)	257(3.5)	229(3.1)	209(2.8)	209(2.8)	222(3.1)	279(3.7)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5년 2월 고용동향』, 2005. 3.

[그림 6] 실업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05년 2월 고용동향』, 2005. 3.

임금 동향

◆ 2004년 임금상승률, 2년 연속 하락

- 2004년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255천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6.0% 상승
 - 이는 전년인 2003년의 임금총액 상승률 9.2%보다 3.2%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2002년에 11.2%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하락하였음.
 - 12월 임금총액은 3,00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0% 상승
- 2004년 실질임금은 2.3% 상승
 - 2004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기에 비해 2.3% 상승함.
 - 12월의 실질임금은 동월 임금총액의 다소 높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0%로 연간 평균치보다 높은 상승률 기록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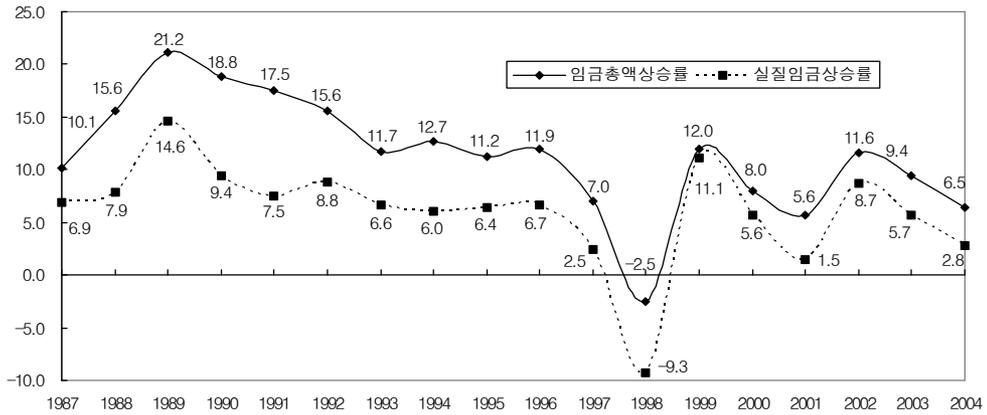
(단위 : 천원/월, 2000=100.0, %)

	2003		200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임 금 총 액	2,127 (9.2)	2,227 (7.3)	2,255 (6.0)	2,185 (3.9)	2,115 (5.0)	2,324 (7.3)	2,399 (7.7)	2,145 (5.5)	2,045 (5.5)	3,007 (11.0)
정 액 급 여	1,532 (8.8)	1,583 (9.0)	1,636 (6.8)	1,599 (7.0)	1,613 (6.6)	1,643 (6.9)	1,690 (6.7)	1,653 (7.0)	1,659 (6.8)	1,757 (6.4)
초 과 급 여	135 (7.3)	145 (8.5)	137 (1.7)	132 (3.1)	138 (2.5)	137 (2.5)	143 (-1.0)	148 (0.0)	142 (-1.0)	140 (-2.1)
특 별 급 여	460 (11.4)	499 (2.0)	482 (4.6)	455 (-5.4)	364 (-0.5)	544 (9.8)	566 (13.3)	344 (0.9)	245 (0.8)	1,110 (21.3)
실 질 임 금 지 수	115.2 (5.5)	119.6 (3.7)	117.9 (2.3)	115.5 (0.6)	111.1 (1.6)	120.5 (2.9)	124.5 (4.1)	111.0 (1.6)	106.5 (2.1)	156.3 (7.7)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10.7 (3.6)	111.7 (3.5)	114.7 (3.6)	113.4 (3.3)	114.2 (3.3)	115.6 (4.3)	115.5 (3.4)	115.9 (3.8)	115.2 (3.3)	115.4 (3.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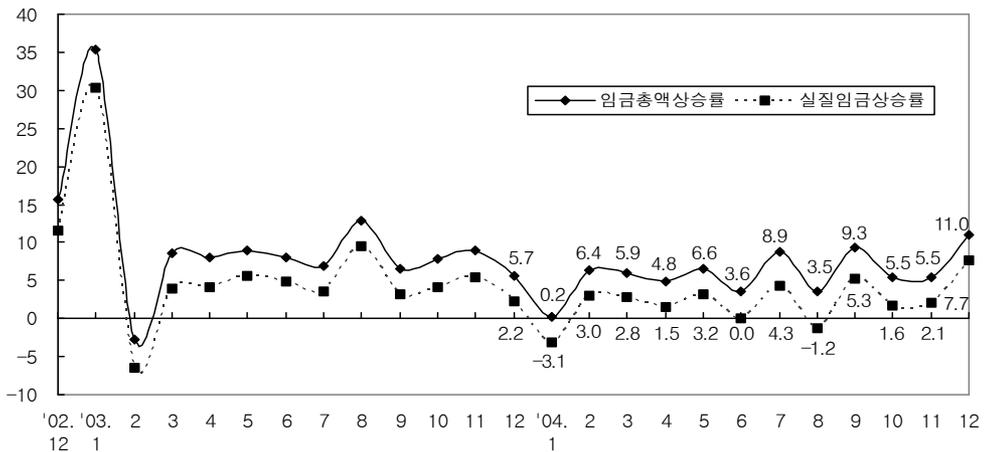
[그림 7] 연도별 임금상승률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



[그림 8] 월별 임금상승률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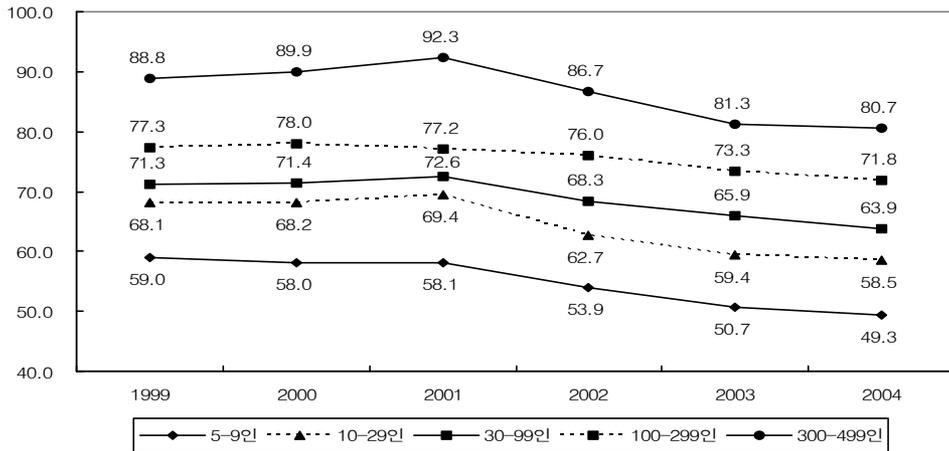
◆ 대규모, 소규모 사업체간 임금 양극화 심화

- 1999년 이후 처음으로 5~9인 사업체의 임금이 500인 이상 사업체의 절반 이하로 하락
 - 2004년의 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과 비교하여 모든 규모에서 확대되었음.
 - 특히 5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한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49.3%를 기록하여 1999년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의 수치를 기록
 - 2004년의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는 경영성과가 좋았던 수출산업의 대규모 사업체

에서 12월에 높은 연말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5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12월 특별급여가 1,072천원으로 5~9인의 182천원보다 약 5.9배 높게 나타남.

〔그림 9〕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규모별 임금수준 추이

(단위: 500인 이상=100.0)



◆ 2005년 협약임금 인상률 및 진도율은 전년보다 다소 낮게 출발

- 협약임금 인상률 전년보다 0.4%포인트 낮게 나타남.
 - 2005년 2월 현재,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4.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4.4%보다 0.4%포인트 하락
- 임금교섭 진도율은 전년보다 다소 낮게 진행 중
 - 2005년 2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6,228개소 중 107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전년동기(2.6%)보다 다소 낮은 1.7%의 진도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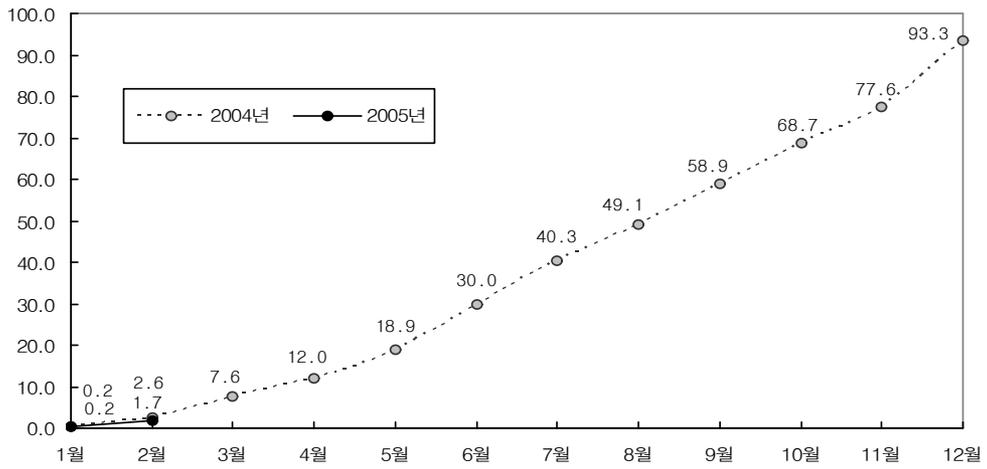
〈표 7〉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5년 2월 현재)

(단위: 개소, %)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B/A)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6,228 (5,909)	107 (214)	1.7 (2.6)	4.4 (4.8)

주: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10]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4, 2005년)



자료: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